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선영	학번	
이메일	oliveissnice@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niversity of Missouri	(국가) USA
기 간	2017. 8 - 2018. 7	[귀국일: 2018년 8월 2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8월 30일

신 청 인 : 김 선 영 (인)

본인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미국 Missouri에 있는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에서 Global Leadership Program을 이수하였다.

<Global Leadership Program>

Global Leadership Program은 University of Missouri의 Asian Affairs Center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공무원, 교수, 연구원 등 1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Asian Affairs Center는 1998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운영, visiting scholar들에 대한 정착지원 등은 다른 KDI와 연계된 학교보다 앞서있다고 생각한다.

Global Leadership Program은 spring semester(1월 - 5월. 3월에 2주간 spring break 있음)와 fall semester(8월 중순 - 11월. Thanksgiving Day 이전에 종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semester는 1st session(7주)과 2nd session(7주)로 진행된다. session이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는데 본인의 관심과 연구주제 등에 따라 communication course와 topic specific course 중에서 4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된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 15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Global Leadership Program의 학사일정은 Columbia Public School의 일정에 맞추어져 있다. 때문에 자녀가 public school에 다닌다면 자녀를 돌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초·중·고등학교보다 늦게 수업이 시작해서 일찍 끝나고 spring break, summer break, winter break도 public school과 비슷하거나 더 길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거나 freezing rain이 내리면 school bus가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public school이 임시 휴업을 하는데 이런 날은 Global Leadership Program도 수업이 없다.

Program instructor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 출신이거나 전직 공립학교 교사, 영어교육 전문가 등이다. 이들은 Asian Affairs Center에서 다년간 Asian scholar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Asian scholar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습관 등을 잘 알고 있고, scholar들이 문화적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다. scholar들이 instructor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인들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그들은 항상 친절히 조언해 주었고, 외국인인 scholar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혼란스럽거나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또한 Asian Affairs Center에는 미국인 staff 외에 한국인 staff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의 본연의 업무는 한국인을 비롯한 scholar들에 대한 정착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지원이지만, 한국인 scholar들이 개인적인 고민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해오면 언제든지 함께 고민해주었다. 일례로 올해 초에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

scholar분의 van과 화물트럭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미국 화물트럭들은 한국의 일반적인 화물트럭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10톤 이상 되는 트레일러 차량이다. Van 탑승자들은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모두 병원치료를 받았고 차는 폐차를 하게 되었다. 사건 당시 경황은 없고 미국에 마땅히 연락할만한 사람도 없어서 Asian Affairs Center에 연락하였는데 한국인 staff분이 사고현장으로 와서 사고수습을 도와주었다.

<초기 정착>

Global Leadership Program은 영어 습득과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scholar들과의 교류 등 program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Asian Affairs Center에서 공항 pick up부터 초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큰 장점이다.

Global Leadership Program에 지원하여 입학이 확정되면 Program 시작 전부터 Asian Affairs Center로부터 정기적으로 안내 메일을 받게 된다. 본인은 fall semester부터 참여하였는데 5월부터 메일을 받기 시작했다. 초반엔 출국 전 준비사항(비행기 티켓 예매, 의료보험, 자녀의 공립학교 등록에 필요한 예방접종 및 필요서류 등)과 함께 전반적인 미국생활 안내와 주택 및 차량 주선 등을, 출국이 가까워지면 미국 입국 시 주의사항 및 입국심사 시 유의사항, 오리엔테이션 일정, 공립학교 등록 일정 등을 안내 받는다.

미국에 입국하여 University of Missouri가 있는 Columbia에 도착하면 지역 공항(Columbia Regional Airport)에서 Asian Affairs Center 한국인 staff를 만나게 된다. 이후 2 - 3일 내에 Asian Affairs Center의 도움을 받아 마트 장보기, 주택 임대계약 체결, utility(가스, 전기, 수도, 쓰레기 등) 신청, 핸드폰 개통, TV(유선방송) 및 인터넷 신청, 은행계좌 개설, 차량구입 및 등록, 자동차보험 가입 등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갖춰지게 된다. 또한 Asian Affairs Center에서 자녀들의 public school enrollment 및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English test 때도 도움을 주는데 등록 시 서류작성, 통역, 미국 학교 시스템에 대한 설명 등 필요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의 생활>

미주리 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어 4계절이 있으며 기후가 비슷하나 우리나라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다. 콜롬비아는 미주리 주 가운데에 위치한 대학도시로 백인 비율이 80%이상이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높으며 public school의 수준은 미주리 주 1위라고 한다. 또한 물가가 저렴하다.

한국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Hollyhock Drive, Carnation Drive (일명 꽃동네, 북서부 지역), Timber Creek (북서부 지역), Wind River Circle (서부 지역), Millbrook, George

Town (서부 지역), Rockbridge (남부 지역)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적인 임대주택의 형태는 두 집이 붙어 있는 duplex로 방 3개 또는 4개, 화장실 2개, garage,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는 2층집이다. 월세는 town이 조성된 시기, 방의 개수에 따라 차이가 나고 집주인이 직접 주택을 관리하는지, 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의 월세가 조금 더 비싸다.

자녀의 학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데 초·중학교는 학교 시설이나 학생들 수준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듯하다. 고등학교는 콜롬비아에 2곳이 있는데 University of Missouri 근처에 있는 Hickman High School은 흑인과 유색인종 학생이 많고, 남쪽에 위치한 Rock Bridge High School은 백인 학생의 비율이 높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를 Rock Bridge High School에 보내기 위해 남쪽에 집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타 도움이 될만한 것들>

출국을 앞두고 짐을 꾸릴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 콜롬비아 다운타운에 한인마트가 있어 한국 식료품 구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짐을 꾸리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품목과 비추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추천 품목

1. 밥솥 : 빈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가져와야 하는 품목. 만약 집과 짐을 인수받는다면 밥솥 상태 확인.
2. 면제품 : 수건, 속옷, 양말 등 면제품은 한국제품이 좋다. 자녀 성장속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이즈를 준비할 것을 추천. 미국에 오면 아이들이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듯 하다.
3. 어린이 해열제, 감기약 등
일반적인 의약품은 미국에서 파는 제품이 종류도 많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단, 어린이 해열제, 감기약 등 시럽제품은 정말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4. 고무장갑 - 마트에서 고무장갑 팔긴 하는데 역시 고무장갑은 한국제품이 좋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왼손 한쪽만 있는 건 미국에는 없다.
6. 건어물, 고추가루 - 건어물은 한인마트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맛은 한국에서 구입하는 제품보다 못한 것 같다. 한인마트에서는 중국산 고추가루를 파는데 상당히 저렴하고 색이 매우 곱지만 매콤한 맛이 덜하고 음식을 하면 미묘한 맛의 차이가 있다.

비추천 품목

고추장, 된장, 김치 등 운송이 어렵고 무거운 것은 한인마트에서 구입하길 권한다. 특

히 김치는 정말 비추천 품목. 한국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김치를 구입할 수 있다.



인적사항

성명	김신혜	학번	
이메일	ksh5954@naver.com		

대학원명	(Missouri-Columbia / non-degree)	(국가) 미국
기 간	2018.1.3 – 2018. 12.4	[귀국일: 2018년12월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2월 일

신 청 인 : 김 신 혜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KDI에서 1년차 학교생활을 할 때 2년차 대학원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한다. 어떤 학생은 지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거나, 날씨 좋은 곳으로 무조건 선택을 하기도 한다.

나 역시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던 차에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의 조언을 따랐던 것 같다. 대부분 정착지원 서비스와 생활비, 그 지역의 물가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미주리주로 가기로 결정했다. 미주리주의 콜럼비아는 미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날씨는 사계절이 있다.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편이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햇빛이 있어 눈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녹아 버린다. 봄은 한국처럼 짧게 느껴진다. 여름은 덥지만 습하지 않아서 좋고, 가을은 정말 절정이다. 가을의 단풍은 한국의 설악산, 내장산 보다 훨씬 장관이다. 여기는 산이 없고 모두 공원 위주이며, 자전거나 산책할 수 있는 MKT 트랙이 있어 그 주변은 온통 나무들로 우거져있다. 한국처럼 높은 산을 올라가지 않아도形形色색의 단풍을 즐길 수가 있다. 기후가 사계절이 있으니 심심할 틈이 없다.

초기 정착생활은 12월 겨울에 오면 오자마자 눈을 볼 수 있어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내 집 앞 눈 쓸기에 좀 바쁘다. 초기 생활은 우선 먹는 것이 문제인데, 요즘은 어디 곳이나 한인 마트가 있어서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치 담을 걱정을 하고 왔지만 한국 김치, 깍두기, 콩나물, 두부, 김, 미역, 라면 등 없는 게 없다. 그리고 대형마트인 월마트, 하이비(HyVee), 샘스 등 주변에 아주 많아서 먹거리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영어를 하더라도 우리의 발음이 콩글리쉬적 이라서 서로 약간의 소통이 안된 적도 있지만, 이것 또한 차차 다 해결되었다.

이 미주리대학교가 위치한 콜럼비아시는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대중교통인 버스도 많고, 미주리대학병원의 시설이 아주 좋으며, 교육 도시답게 젊은이들이 많고 물가가 비싸지 않아서 살기 좋은 곳이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수업은 미주리대학교내에 AAC(Asian Affair Center) 아시아교육센터에서 진행됐으며 4세션으로 이루어졌고 수강신청도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으며, 미국의 문화, 경제, 정치, 생활, 교육, 음악, 사회 등을 고루 갖춘 커리큘럼이라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깊게 공부할 수 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 별도로 발음교정프로그램을 6주간 받게 되는데, 이때 영어발음을 전공한 미주리대학생과 같이 수업을 거의 1:1로 하는데, 이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주리대학생과 랭귀지파트너로 연결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이것 또한 너무 좋았다. 나의 랭귀지파트너는 세인루이스에서 사는 MU(미주리대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나의 영어 공부에 도움을 많이 줬다. 매주 2-3회를 만나서 미국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의 사례도 얘기해 주면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AAC 수업 중에는 콜럼비아시를 투어 하는 필드 트립 시간이 있어서, 콜럼비아 시니어센터, Food Bank, 기념묘지, 기념 공원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또한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매일 아침 수업하기 전에 모닝토크 시간이 있어 미국내의 주요 기사를 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묻고 답해 주는 시간 또한 영어 공부에 아니 미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강사 분들도 좋아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GLP 프로그램답게 수강과목도 다양하고, 아시아센터(AAC)에서 매주 뉴스레터라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 메일로 수강신청 및 미주리대학내 학교행사, 컬럼비아시의 주요 행사, 음악, 영화 등의 스케줄을 사전에 알려준다. 그래서 수강신청이나 문화생활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수업시간에도 소수 인원이 배우나 보니 자유롭게 본인 의사표현을 하거나 질문을 해서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이 많다. 한 시즌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부터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 피스백을 해서 수업에 불편함은 없다. 학생들은 주로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 라오스 등 다양하다. 각 수업시간마다 약간의 과제가 있으나 어렵지 않고, 약간의 페이퍼 제출 또는 마지막 시간에 몇 분 정도의 PPT 발표를 할 수 있으나 즐겁게 웃으면서 들어 주는 시간이라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내가 살고 있는 듀플렉스(Duplex)로 북 층으로 된 이층 가정집으로 차고가 있어 바로 집 거실로 이어져 있고, 백야드(뒤뜰)에 잔디밭이 있어 거실에서 바로 나갈 수 있고 주변이 다 잔디밭이라 초원 위의 집 같다. 주변은 다 가정집이라서 조용하며 렌탈 비용도 비싸지 않아서 생활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다. 주변 잔디는 집주인이 주기적으로 깎아 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가족들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기숙사나 아파트 보다는 듀플렉스를 선호하는 편이다.

음식은 한인마트(Lee's market)가 있어 한국음식을 모두 먹을 수 있고, 주변 로컬 음식점에서 스테이크나,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 맛 집을 찾는 즐거움도 있다. 특히 로컬피자인 셰익스피어 피자, 멕시코음식점, charleys philly steaks 등 모두 맛있었다. 그리고 모저스에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삼겹살, 사골(죽)도 있으며, ALDI(알디)에 식빵, 홍합 등은 가격도 착하면서 너무 맛있고, 심지어 월마트(Walmart)에도 한국의 신라면, 컵라면까지 판매 되고 있어 더욱 놀랐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나는 수업이 종료하면 미주리대학교 내 많은 세미나, 토론, 학술포럼에 참여하여 조금이라도 영어를 듣고, 여기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 본 시간이 좋았던 것 같다. 이 시간은 어떤 제한도 없어서 나는 나의 딸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다. 이 대학은 좋은 강사 분 들을 초빙하여 토론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또한 학교 내에서 무료로 요가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캠퍼스 내에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어 즐거웠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GMP과정을 너무나 기대했었다. 처음 한달 동안은 1년이란 시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5월이 오고 6월이 되면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 또한 행복했다. 광활한 미국의 자연이나 대도시를 보면서 어떤 면이 선진국인가를 알게 되는 시간이 흘러 간다. 8월 중순부터 다시 학기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초고속으로 지나간다. 9월이 되면 이제 집과 차량을 다시 오는 사람에게 매칭을 시도한다. 그러면 10월 가을을 좀더 즐기다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바로 11월이 돌아온다. 정말 빨리 1년이 지나간다.

처음 도착 할 때는 운동도 하고 개인 취미생활을 다 해보고 가리라 맘 먹지만, 시간이 허락 하지 않는다. 짬짬이 여행도 가야하고 이런 저런 행사들도 참석 하다 보면 참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모두들 1년은 너무 짧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야 한다.

돌아갈 때 쯤에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모두 좋았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여기서 만난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특히, 한국 분들이 이민 와서 오랫동안 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정착하고 생활하기가 힘들었겠다' 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이 살기 좋구나' 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우리는 1년,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이분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 간다는 게 너무 대견해 보였다. 외국생활이라는 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해 주면서 재충전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와 출국 등은 AAC(아시아센터)에서 모두 자세히 챙겨 준다. 비자는 J1, J2 비자인 경우는 거의 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에도 어디 가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 누구랑 가는지 등 아주 간단한 것 만 물어 봤던 것 같다. 출국 또한 J1 비자인 경우는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 나도 처음이라 엄청 걱정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걱정을 했던 것 같다.

그 외에 초기에 도착하면 핸드폰 개통과 인터넷 개통을 하게 된다. 핸드폰은 가족 수 만큼 사용하게 되는데, 한국처럼 가족 결합 상품이 있어 3명이 통합하는 핸드폰 요금제로 하면 조금 더 할인이 되며, 핸드폰요금을 자동이체 하면 또 할인이 된다. 인터넷은 초기 정착시기에 대폭 할인을 하니 이점을 잊지 말고 할인을 최대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여행시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운전이 제한 되므로 무조건 빨리 취득 하는 게 좋고, 부부가 같이 취득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조금 할인된다. 이 곳 콜럼비아시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 시 한글로 응시 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다. 다만, 도로주행 시험은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이고, 특히 Stop 사인과 제한 속도 등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이 또한 몇 번 연습하면 대부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느리다. 그래서 입국할 때 유학생 의료비는 최대한 혜택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은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을 가지 않는다. 아주 많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면 의료비는 엄청 비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비를 보험료로 지급 시에는 정말 길게는 1년까지 천천히 지급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 선진국이 맞는지 의문스러워 한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GMP 과정은 정말 좋다. 행복한 시간이고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미주리주 콜럼비아는 저렴한 물가, 백인들이 많이 살고, 교육도시답게 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시스템을 한국과 비교하여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서영준	학번	
이메일	kwaedo@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미주리 대학교 / 트루먼 스쿨	(국가) 미국
기 간	2016.12 ~2017.12	[귀국일: 2017. 12.26]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 영 준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 학교 등)

- 미주리 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는 미주리주의 Columbia 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는 미국 중부지역, 소위 Mid-West라고 불리는 지역의 한 주로, 동쪽으로는 일리노이, 서쪽으로는 켄터키, 남쪽으로는 아칸소와 오클라호바, 북쪽으로는 아이오와 주와 접하고 있는 다소 전원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기후는 우리나라와 특별히 다르지 않고 4계절이 뚜렷한 편이라 적응하는 데 전혀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다.

- 학교가 위치한 컬럼비아 시는 미주리 주에서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미주리 주에는 캔자스시티(미주리주 서쪽끝)와 세인트루이스(동쪽끝)라는 대도시가 30~50만명의 인구(시 경계 인구 기준, 광역 생활권 기준으로는 훨씬 거대한 영역을 포괄함)를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인구 20만명이 채 안되는 스프링필드, 다음으로 인구 12~13만명의 컬럼비아가 네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에서 느껴지듯, 컬럼비아는 사실상 미주리대학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학도시로, 도시 규모가 크지 않은 대신 주민들의 수준은 여타 시골 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컬럼비아는 미주리주의 정 중앙에 위치해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시티와 자동차로 두시간 거리이며, 주정부가 위치한 제퍼슨시티는 약 30~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 컬럼비아는 대도시가 아닌데다, 전원지역인 중부지역 도시여서 고층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은 많지 않으며(도시 자체에 고층빌딩이 거의 없음), 대부분 가족단위 학생들의 경우 '듀플렉스'라고도 하는 주택 두채가 하나로 붙어있는 형태의 집을 렌트하게 됩니다. 다른 집과 붙어 있는 형태가 부담스러울 경우, 현지 미국인들과 같이 단독 주택을 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미국으로 혼자 가거나 가족들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아파트 형태 또는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 집에 하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년간 살았던 듀플렉스의 경우 월 700~1100불 가량, 독채 주택의 경우 월 1500~2000 불 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듀플렉스 주택의 경우 동네에 따라 조건이나 환경이 다르지만, 대부분 2층 구조로, 1층에 거실,화장실 2개, 주방, 방1개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방2개에 화장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 주변 정원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 컬럼비아를 다녀가는 한국인 연수생은, 가족을 동반한 성인들의 경우 제가 머문 2017년 정도까지는 꽃동네, 윈드리버, 밀브룩 등에 주로 모여 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신개발 지역인 락브리지 지역으로도 많이 거주지를 찾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것과 미국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 사는 것이 각기 장단점이 있어 거주지는 각자 바라시는 바에 따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인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 무엇보다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웃간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는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다 한국인들간 갈등이 빚어지는 일도 가끔씩 벌어진다는 점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시 구역 전체를 볼 때, 세인트루이스-캔자스시티를 잇는 I-70 고속도로가 시 중간을 동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고속도로 북쪽은 다소 소득수준이 낮고 위험한 지역

으로, 남쪽 지역이 다소 생활환경이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주거지역이 주로 고속도로 이남에 있어 안전, 치안 문제는 한결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밤중에도 자유롭게 집 바깥을 돌아다닐 수 있는 한국과는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는 문 걸어잠고고 차량이 아닌 다음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생활비의 경우 집 렌트비에 수도/전기(유틸리티라고 합니다), 통신비, 가스비, 그리고 TV/인터넷 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주거비(월 1095불)에다 모두 합쳐 월 1500~1700불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차량 기름값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휘발유는 한국 대비 40%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이라는 것이 집만 나서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다 도시가 넓게 퍼져 있어, 이동 거리가 한국보다 훨씬 길어 유류비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식비의 경우 소고기가 워낙 싸서 천국에 온 느낌도 들지만, 그만큼 많이 먹게 되는데다, 한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던 음식들-라면, 소주 등-이 비싸기 때문에 이 또한 한국보다 크게 쌀 것이라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 자녀들을 동반하는 분들의 경우, 교육환경 문제가 가장 신경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주리주의 경우 우리로 치면 유치원 2학기~6학년 1학기까지가 K(kindergarten)~5학년까지로 나뉘어 있고, 이후 6~8학년이 middle school, 9~11학년이 high school이 됩니다. 주요 학교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ELL'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하루 중 1시간(주로 영어 시간)을 별도 선생님들이 영어 적응 과정을 지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아이들 영어를 최대한 가르쳐 놓으면 좋겠지만, 유창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른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교 등교시간은 중학교(7:20까지) -> 초등학교(8:20까지) -> 고등학교(09:20까지) 순이며, 하교시간은 차례대로 중학교(14:20) -> 초등학교(15:20) -> 고등학교(16:20)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스쿨버스를 순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쿨버스를 태워 보내거나 직접 학교로 태워주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 모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교시간에 되는 통에 정작 어른들은 여유를 즐길 수 없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바쁜 직장생활로 자녀들과 가까이 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미국에서의 생활을 오히려 가족들에게 투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녀교육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미국생활 1년은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신경을 덜 쓰면서 여러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특히 컬럼비아에는 아이들이 가입해 주말마다 경기를 가질 수 있는 리그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으며, 원할 경우 야구나 미식축구 클럽에도 가입해 활동하면 됩니다. 주로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됩니다. 미주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에도 오디션을 거쳐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 아이들의 경우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가 많아 참여시 오케스트라 '즉시 전력'으로 맹활약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 방학을 이용해 많은 한국이 가족들이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여행을 다녀옵니다. 미주리의 경우 미국 중앙에 자리하고 있어, 동부, 서부, 남부 등 어느 곳으로

향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해 다닐 수 있다는 점이 멋진 장점입니다. 미주리에서 미국 동부까지 자동차로 12시간 가량, 서부로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덴버까지 11시간 가량, 남으로는 텍사스 달라스까지 10시간 가량이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부나 서부에 비해 차량으로 온가족이 야영을 겸해 미국 전부를 일주할 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여행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과 별도로 저의 경우는 생각을 야간 달리해 미국 여행은 꼭 필요하다 싶은 만큼만 다녀오되, 되도록 아이들(아들 둘, 한국 나이로 초6, 초2)이 컬럼비아에서 미국 현지인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월말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 기간인데, 6월에는 학교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한달간의 섬머스쿨에 다니도록 하였고, 20일간의 동부여행후 컬럼비아에 돌아와 2주간 현지인 아이들과 현지 섬머캠프(축구, 미술, 과학 등)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2주간 서부여행을 다녀온 후 남은 2주간 다시 현지 섬머캠프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는 3달간의 미국여행도 평생 남을 추억이지만, 미국에서 몇 달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들과 다시 세 달간 한국어로만 생활하게 되는데다, 되도록 거주하는 현지에서 주변 현지인들과 더 부대끼며 경험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특히 KDI출신들의 경우 체류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터라, 2년 학위연수로 오는 가정과는 다르게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모 입장에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체류기간 동안 아이들 영어를 위한 개인 튜터를 많은 경우 붙여주는데, 저의 경우 영어 튜터보다는 축구, 음악, 미술캠프 등에 등록해 현지인 친구들과 더 어울리도록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영어 튜터 등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인들끼리 많은 정보가 교환되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미국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스포츠와 가깝게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미주리의 경우 야구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캔자스시티 로얄스, 미식축구는 캔자스시티 치프스, 아이스하키의 경우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를 응원하게 되며, 미주리대학교 스포츠팀은 당연히 우선입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미국인 현지인들 생활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 학교를 방문해도 많은 선생님들이 평소에 스포츠팀 티셔츠, 등을 입고 다니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티셔츠를 입혀보낸다거나, 선생님들 또는 미국인 이웃들과 이를 소재로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미주리대학교 교육 관련사항

- 저는 미주리대학교 비학위과정을 신청했으나, 2개 과목을 미주리대 행정대학원 수업을 듣고 오는 것으로 선택해 미주리대 트루먼스쿨에 정식으로 어드미션을 받아 입학했습니다.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님에도, 대학원 정식 입학허가는 똑같이 받아야 해서 "이렇게 똑같이 고생할 거라면 차라리 학위를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비학위 연수기관 출석에다 대학원 수업 두과목을 들어야 했지만, 학위과정보다는 학습량이 다소 적었고, 그 시간을 가족들에게 쏟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미주리대 비학위 과정의 경우 '아시아 센터'라는 기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해 주

고 있으며, 이는 미국내 다른 어떤 학교보다도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가지 단점이라면, 한국사람들끼리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물론 함께 수업을 듣는 중국인들도 많이 있고, 몽골, 태국인들도 있습니다 - 반드시 장점이라고만은 할 수 없기에, 적절한 조절을 통해 미국 체류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시아센터 커리큘럼은 쉽게 받아들이면 쉽고, 정성들여 준비하자면 까다로운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열심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원 수업의 경우 행정 조직학 관련 두과목을 들었는데, 그중 한 과목은 미주리 주정부 공무원들이 많이 듣는 과목으로 제퍼슨시티에 있는 미주리 주정부 청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공무원들과 토론할 기회가 주어져 뜻깊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수업 강도는 쉽지는 않았으나, KDI 1년차 과정을 달 치러 오신 분들은 큰 무리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주리대 교수들의 경우 한국과의 교류가 많은 편에 속해 한국 학생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해 준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주리주 출신 유일한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애착이 깊어 미주리대에서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설에는 6.25 이후 한국 국토가 모두 헐벗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이자 한국과 기후가 비슷한 미주리주 나무, 식물들을 한국으로 보내 심도록 해 한국과 식생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확인은 할 수 없었습니다.

- 부인이나 남편을 동반하신 분들은 아시아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파우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단, 한학기만 등록 가능). 이 프로그램에서는 연수생들보다 더 실질적인 정보들 -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주문하기, 제철 음식들 골라 사기, 미국 요리하기 등- 을 지도해 주어 제 와이프도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5. 기타 경험담

- 저의 경우에는 학업생활 이외 모든 시간을 가족,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부의 평상시 일과입니다

- 아침에 일어나(7시경) 아이들 아침식사를 챙기고 학교로 함께 태워준 뒤 집에 돌아와 부부끼리 아침을 먹고 미주리대로 향합니다(보통 수업은 09:15 시작). 와이프도 스파우즈 수업이 있으면 함께 등교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오후 1시 정도가 되며 점심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큰아이(중1) 하교시간이 되어 데리러 갑니다 큰아이를 데리고 오면 바로 작은아이 하교시간(초2)이 되어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이 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날씨가 좋을 경우 집 앞 잔디밭에 나가 야구, 축구 등 함께 놀아줍니다. 동네 아이들이 함께 할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새 저녁시간이 되며,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 숙제 등을 봐 줍니다. 축구, 오케스트라 등 아이들 활동이 있으면 평일 저녁도 종종 활동에 데려다 주고 봐줘야 합니다. 저녁후 아이들 한국 공부를 시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신경을 덜 쓰려고 해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학업 커리큘럼이 한국보다 느슨한 것이 사실로, 많은 아이들이 미국에 오자마자 친구들로부터

“Genious”라는 이야기를 듣는 터라, 귀국후 한국 학업 적응에 대한 불안감은 더 해갑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덧 잘 시간이 되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기
에 빨리 잠을 청합니다. 주말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주변 대형마트에 종종 장
을 보러 가야 하는데다, 스포츠, 예술활동이나, 주말 캠프에 아이들을 넣을 경우
아이들을 실어나르는데 주말이 다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축구 게임이
있으면 온 가족이 나가 나들이를 겸해 경기를 보고 옵니다. 제 생각으론 다른
미국 현지인들의 생활도 우리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
활 패턴-가족 중심의 패턴-이 평범한 미국 중산층의 생활패턴이었으며, 이런 상
황에서 한국과 같이 남성들이 매일같이 밤늦게 술자리를 가지는 문화와는 양립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집에서 가족끼리 한잔 하거나, 자기 집
에 초대해 술자리를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만큼의 여유로운 생
활은 아니지만, 가족들을 위해 행복하게 바쁜 1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다른 가족
들의 경우 영어 등 아이들 튜터까지 몇 명씩 붙였던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바
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업지는 않았으
나, 와이프는 미국에서 1년간의 Family-oriented life를 잊을 수 없다며, 귀국 후에
도 미국에서의 생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KDI GMP 2년차 과정은 글로벌 경험을 통한 시야 확대는 물론, 학업 측면에서의
성취와 함께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님들께서도 KDI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신 시스템과 기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신과 직장의 발전은
물론 모교 KDI School의 발전을 위한 자산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황수진	학번	
이메일	Gloria358@naver.com		

대학원명	Columbia of Missouri State University	(국가) United States
기 간	2018.1.1 ~ 2018.12.31	[귀국일: 2018. 12. 31.]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미주리주 컬럼비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름과 겨울이 점점 길어지고 봄 가을이 짧아지고 있다. 특히 4월말까지도 난방이 필요할 정도로 춥다가 5월이 되면 바로 여름처럼 더워진다. 산이 없어 햇빛이 그대로 지면을 내리쬐어 자외선차 단제나 모자, 섰크림은 필수이다. 그러나, 가을은 한국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

생활환경은 익히 알고 있듯이 다른 도시보다는 물가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월마트가 미주리 주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Sam's Club, Hybee 등 대형마트가 멀지 않은 곳에 여러군데 있다. 한인마트는 Lee's Market이라고 웬만한 한국식자재는 구입할 수 있고 Hongkong Market도 있어 아시아 음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월세는 지역마다 다르며 \$700 ~ \$1,200 정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성장하는 도시라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초중고등학교도 계속해서 신설되고 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비학위 과정은 아시아센터에서 구성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기본수업은 봄학기 2세션(14주), 가을학기 2세션(14주), 중간 여름학기(4주) 정도로 구성된다. 수업은 학위과정의 수업보다는 수준이 높지 않아 따라가는데 어렵지 않은 정도이며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과 미국 문화 등 콘텐츠에 더 중점을 둔 수업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생각해서 수업선택을 하면 될 것 같다.

강사들은 한국 학생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면 임할수록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강사들은 대체로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강사들의 나이가 많은 것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수업과목명은 예를 들면 Americ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ublic Policy, Judicial system 등 콘텐츠 위주의 수업과 Writing, Listening, Speaking, Reading 관련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수업이 있다.

3.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가족이 아닌 혼자 연수할 계획이면 아파트(스튜디오)가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full furnished 되어 가구 등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연수가 끝날때에도 짐 처분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가격대는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다른데 차가 있으면 거리가 있어도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음식은 주로 한인마트를 이용하여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것이 생활비면에서나 건강면에서 나올 수 있다. 최근에는 건강식을 취급하는 식당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음식은 전반적으로 짜고 달아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다.

4.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학교수업외에 여유가 되고 영어에 대한 추가 학습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컬럼비아 시에서 운영하는 non native speaker들을 위한 무료 영어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Career Center에서 제공하는 수업은 주로 여름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화, 목 저녁 6시부터 2시간 30분 수업이 제공된다. 영어도 배울 수 있지만 미국인이 아닌 다양한 인종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의 기회도 많다. 푸드뱅크에서 저소득 계층들에게 음식을 배분해주는 봉사를 할 수 있고 동물을 좋아한다면 유기동물센터에서 동물들과 함께 놀아주기 등을 할 수 있다.

혹은 여성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여성 보호소에서 피해여성들과의 대화 및 아이들과 놀아주기 등 뜻깊은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다. 단, 이 자원봉사는 필수 사전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여야만 참여할 수 있다.

5.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이라 가기 전 많은 걱정과 기대가 있었는데 컬럼비아란 도시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닌 미주리 주립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시라 도시 자체가 조용하고 큰 안정감이 있다. 미국의 큰 도시처럼 활발하고 뭔가 액티브한 분위기를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가도 적당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는 컬럼비아가 만족스러울 것이다.

컬럼비아에선 생각만큼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은 없었으나, 아시아인보다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은 존재함을 조금은 느꼈다.

하지만 워낙 도시 자체가 백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흑인들이 사는 지역과 자연스레 분리가 되어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다.

6.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는 일정에 맞추어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출입국도 별 어려움없이 이루어졌다. 미국 입국시에는 국내선 갈아타기 전 한번은 세관을 통과해야 하기에 중간에 경유지에서 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귀국할때는 경유지

가 있어도 짐을 찾지 않아도 한번에 한국까지 이동되어 좀 더 편하다. 미국의 국내선은 1~2시간 지연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 항상 염두에 두고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 자동차 여행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을 한다면 컬럼비아는 다소 불편한 지역이다. 암트랙을 이용하더라도 근처 제퍼슨 시티까지 가서 이용을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고속버스에 해당하는 greyhound는 출발 도착시간이 정말 제멋대로이기에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나마 대도시에서의 메가버스 정도는 저렴한 맛에 한번은 이용해 볼만하다.

7.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우선 미국에서의 연수지를 선택시에는 자신의 연수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영어공부 및 좀 더 아카데믹한 콘텐츠를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비학위 과정보다는 학위과정을 선택해야 하며 공부보다는 다양한 문화 경험에 좀 더 비중을 둔다면 비학위 과정이 나을 수 있다.

컬럼비아는 한국과 많이 다르지 않은 도시 분위기로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최대한 컬럼비아에서 미국만의 문화를 많이 경험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찾아내는 것이 1차 과제이며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language partner와의 언어교환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교학처장 귀하

2018년 12월 31 일

신 청 인 : 황수진 (인)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253 FAX: 82-44-550-1232

HOME PAGE: <http://www.kdischool.ac.kr>